

중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의 특성 : 유교적 전통과 연계될 수 있는 측면*

金 秀 勇

- I. 서 론
- II. 중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 III. 경제개혁의 전개과정과 개혁노선에 관한 논쟁
- IV. 중국경제의 성과와 유교적 특성
- V. 전망과 결론

I. 서 론

중국의 경제개혁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중국내에서는 물론 전세계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중국은 일인당소득 수준으로 볼 때 여전히 매우 가난한 나라이지만 지난 십수년 동안의 경제성장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몇나라중의 하나다. 1985-94년의 기간중 중국의 1인당 GNP는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한국에서의 성과와 같은 것으로 세계에서 단지 태국만이 이 수준을 넘는 성장율을 보였다.¹⁾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온 1970년대 말부터의 개혁정책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동유럽과 구소련의 여러 나라의 경우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러시아나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는 1990년부터 시작된 짧은 기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진적인 전환을 단행한 것에 비해 중국은 1979년부터 긴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되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혁 이후의 러시아나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경제가 극심한 혼란속에서 負의 성장을 수년간 계속한 것에 비해 중국의 지속적 고도성장은 크게 대비된다. 이러한 성과의 차이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전분야에 걸쳐 급진적 개혁과 부분적이며 점진적인 개혁 중 어느 전략이 더 우월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은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는데 이제 동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인 중국도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등장하게 된다. 단순히 세계경제여건이나 정책수단의 선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성과면에서의 차이를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들 동아시아국가들의 지배적 유산인 儒敎정신이 어떤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하였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

1) World Bank(1996), pp.188-9

한 변화를 가능케한 정책의 선택과 그 배경을 검토하면서 정책결정자나 기업의 관리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유교적 전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과를 유교적 전통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총론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유교의 변천과정과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부터 경제의식이나 행동에 미치는 다른 사회적, 제도적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험과의 비교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음의 2절에서는 먼저 중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들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특히 1970년대 말부터의 개혁정책의 전개과정과 개혁의 효과 그리고 정책선택을 둘러싼 주요 논점을 검토한다. 중국에서의 정책논의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유교정신은 무엇이며 어떤 부정적 또는 긍정적 효과를 말할 수 있는가는 제4절에서 다룬다. 제5절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개혁방향에 관한 논의와 유교적 전통의 요인을 종합할 때 앞으로의 중국경제의 발전 전망과 관련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찾아본다.

II. 중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GDP는 1953-78년 기간에 연평균 6.0%의 속도로 증가하였다.²⁾ 이와 같은 성장속도는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의 평균에 비교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발전단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통계의 정확도

2) Lin, Cai and Li(1996), <표 3-1>

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외에도 특히 기준년도가 되는 1950년대 초의 경제통계가 실제보다 낮게 잡혔다면 70년대의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더라도 성장율은 크게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자들의 추정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율은 4내지 5%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공업부문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농업부문의 성장은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같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떨어지는 속도였다.³⁾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의 성장속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79-95년 사이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9.8%를 나타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훨씬 정확한 통계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World Bank의 추계에 의하면 1994년의 중국의 1인당 GDP는 530달러로 한국의 8,260달러에 비하면 16분의 1 수준이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한다면 인도나 파키스탄보다는 높지만 콩고나 스리랑카보다는 낮은 수준이다.⁴⁾

따라서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으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매우 가난한 나라이다. 그러나 빠른 성장과 비교적 고른 소득분배로 과거에 비해 중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현저히 나아졌다.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은 주요 식품의 소비량이나 주요 내구소비재의 보유량의 변동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주요 식품 중에서 1952-78년 사이에 1인당 소비량이 비교적 크게 늘어난 것은 계란, 설탕, 주류뿐이었는데 1978-92년 사이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양곡, 식용유, 육류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큰 증가를 보였다. 내구소비재의 보유량도 1978년 이후 현저히 늘어났는데 <표 2>에서 보듯이 텔레비전의 경우 1978년에는 백명당 0.3대에 불과하던 것이 1992년에는 19.5대로 늘어났고 세탁기는 1985년에 백명당 2.9대에서 1992년에는 10.0대로 늘어났다.

3) Lal(1995), pp. 1478-9.

4) 중국의 인구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1인당 GDP계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가구 일자녀'정책의 실시로 여아의 출생은 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다.

<표 1> 주요 식품의 1인당 소비량

단위 : kg

	양곡	식용유	육류	가금	계란	수산물	설탕	주류
1952	197.7	2.1	6.8	0.4	1.0	2.7	0.9	1.1
1978	195.5	1.6	8.4	0.4	2.0	3.5	3.4	2.6
1992	235.9	6.3	20.3	2.3	7.7	7.3	5.4	12.9

자료 : Lin, Cai and Li(1996), <표 1.3>

<표 2> 주요 내구소비재의 백명당 보유량

단위 : 대

	재봉틀	자전거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TV	카메라
1978	3.5	7.7	1.0	-	-	0.3	0.5
1985	9.3	21.1	6.0	2.9	0.4	6.6	1.1
1992	12.8	38.5	22.0	10.0	3.4	19.5	2.3

자료 : Lin, Cai and Li(1996), <표 1.4>

중국의 소득분배상황은 1978년 이전의 사회주의체제에서보다는 더 불균등해졌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더 균등한 편이다. 1992년 중국의 Gini계수는 0.38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헝가리, 폴란드, 베트남 등 다른 체제전환국에서의 경우보다는 불균등한 수준이고 러시아보다는 더 균등한 수준이다. 또한 OECD국가의 평균인 0.35와 비슷한 것이며 세계중진국평균인 0.45에 비하면 훨씬 더 균등하다.⁵⁾ 중국에서 소득분배의 불균등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이후 공업부문의 개혁이 본격화되면서부터이고 이는 이때부터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전체적으로도 개혁정책으로 동남부해

5) World Bank(1996), pp.68-9

안지역의 성장률은 인구밀집지역인 중부내륙지역의 성장률에 비해 2배나 되었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무역·산업정책은 해안지역의 빠른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 사용의 분권화정책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빈곤한 지역으로의 이전지불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30개 省, 市, 自治區 가운데 1인당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上海市이며 다음으로 北京市, 天津市, 遼寧省, 廣東省의 순이다. 貴州省, 安徽省, 廣西省 등이 가장 빈곤한 지역인데 1991년의 경우 가장 높은 上海市에 비해 가장 낮은 貴州省의 1인당 소득 수준은 1/7에도 못 미쳤다.⁶⁾ 이러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원인은 개방정책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대도시와 연해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정부의 농업정책과 가격정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중국정부는 1989-90년 기간에 농민에게 강제로 식량작물을 경작케 하고 향진기업의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저해하였으며 자원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광산자원이 풍부한 중·서부지역의 소득향상을 저해하였다.⁷⁾

중국의 경제발전은 산업구조에도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서의 GDP통계는 1978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산업별 GDP 구성비율의 변화를 보면 <표 3>에 나타나있듯이 농림어업의 비중이 1980년의 30%에서 1994년에는 21%로 크게 줄고 대신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1%에서 32%로 크게 늘어났다. 광공업의 비중은 약간 낮아졌다. 중국의 생산에서의 산업별 구성은 GDP 이외에도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國民收入 또는 총사회생산에서의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수치가 다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가격하에 있는 품목이 많으므로 가격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치 자체보다는 변화추세가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

6) 崔秀雄(1994), p. 25

7) Lin, Cai and Li(1996), p.225

업별 고용구조의 변동을 보면 역시 농업부문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부문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왔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3> 중국 GDP의 산업별 구성1)

단위 : %

	농림어업	광공업 ²⁾ (제조업)	서비스
1980	30	49(41)	21
1994	21	47(37)	32

자료 : World Bank(1996), p. 210

주 : 1) 구매자가격 기준

2) 광업, 제조업, 건설, 전기·가스를 포함.

<표 4> 중국의 산업별 고용비율

단위 : %

	총고용자수(만명)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
1975	38168	77.1	13.3	9.6
1980	42361	68.7	18.3	13.0
1990	56740	60.0	21.4	18.6
1995	62388	52.9	23.0	24.1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1996), p. 88.

고용구조에서 보듯이 중국은 아직도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농촌의 커다란 소득격차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대량의 무작정 이주자들(盲流)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⁸⁾

8) 1995년의 중국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71%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도시 인구는 29%를 차지했다. 中國國家統計局(1996), p. 30.

중국내륙의 빈곤한 지역으로부터 연해지역으로 이동해온 노동자의 수는 1996년 현재 약 1억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의 호적제도때문에 노동자가 가족을 데리고 다른 省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노동자들은 몇 년간 도시에 취업하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보인다. 四川省의 경우 총인구는 1억 1천만명으로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성인데 공식적으로는 이들 중 9천만명이 농가인구이지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인구는 5천만명 정도다. 四川省의 '잉여'노동력은 약 2천만명 정도가 되며 현재 다른 지역에 나가있는 노동자의 수는 약 6백만명으로 추정된다.⁹⁾

개혁·개방정책으로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은 대외거래 분야다. 1978년 중국의 상품수출과 수입은 각각 973달러와 109억달러에 불과했는데 1995년에는 1,488억달러와 1,321억달러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4.7%에서 1992년에는 19.2%로 높아졌고 수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5.2%에서 18.5%로 늘어났다.¹⁰⁾

수출의 빠른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대적인 유입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대까지는 직접투자보다는 차관의 형태로 더 많은 외국자본을 도입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직접투자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표 5>에 나타나있듯이 1979-95년 사이에 차관의 계약액은 1,070억달러였는데 실제 사용액은 965억 달러였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의 계약액은 무려 4천억달러에 육박하였고 사용액도 1,332억달러나 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계약은 1992년부터 급격히 늘어났고 도입액도 따라서 늘어나 1994-5년에는 매년 300억달러 이상이 도입되었다.

중국의 수출총액에서 外資기업의 수출 비중은 1991년에 이미 17%가 되었는데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 1995년에는 31.5%나 되었다.¹¹⁾ 즉 총

9) The Economist, July 6, 1996, p. 27-8.

10) Lin, Cai and Li(1996), <표 6. 5>

11) 姜鳳求(1996), <표 3>.

생산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수출, 특히 공산품 수출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중국의 외국자본 도입

단위 : 억달러

	197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79-95
차관계약액	507	51	72	107	113	107	113	1,070
사용액	493	65	120	79	112	93	103	965
직접투자계약액	324	66	120	581	1,114	827	913	3,945
사용액	155	35	44	110	275	338	375	1,332

자료 : 姜鳳求(1996), <표 2>.

III. 경제개혁의 전개과정과 개혁노선에 관한 논쟁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경제개혁과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에서의 개혁은 훨씬 일찍 시작되었고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의 개혁은 단기간에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중국에서의 개혁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개혁이지만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의 개혁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물가안정정책, 외환거래자유화, 국유기업의 민영화, 금융과 세제의 개혁 등이 중앙계획의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을 짧은 기간에 동시적으로 추진한 나라들은 중국과는 달리 정부의 통제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 있었고 경제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6년에 시작된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경제구조조정)정책은 투자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악화와 외채증가, 재정적자의 확대로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 소련의 정치적, 군사적 압제로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소련의 붕괴로 '유럽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은 EU에서와 같은 정치·경제체제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변혁이 급속하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급진적인 경제개혁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신이나 변혁 요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가 정체되었지만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개혁을 주도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대체로 그러했듯이 개혁 이전의 중국에서 기본적인 발전 전략은 중공업우선정책이었다. 1953-57년의 제1차5개년 계획에서부터 중공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고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중공업에 배분되었다.¹²⁾ 이러한 중공업 우선정책은 자급자족적 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외부와의 교역은 통제하에서 최소 수준에서 허용되었고 따라서 국내와 세계시장의 상대가격의 연결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은 왜곡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찾기 어렵게 된다.

중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저이자율, 저임금, 저원재료가격, 저환율,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실시하였다. 자본집약도가 높고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 규모가 큰 중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자본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임금이나 원료가격도 마찬가지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주

12) 이 기간중 농업과 공업부분 고정투자의 73%가 중공업에 배분되었다. Lin, Cai and Li(1996), p. 49.

로 구매하는 농산물과 다른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환율정책은 중공업 건설에 필요한 선진설비의 해외로부터의 도입에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러한 환율정책은 1차상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내므로 자급자족적 중공업 우선정책과 일치한다.

1978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은 먼저 농업부문에서의 인센티브 도입으로 농업생산을 크게 증가시켰다. 과거에는 사회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던 농가청부생산제도를 용인함으로써 일정한 토지를 청부받은 농가가 경작후 생산량 중 일정부분은 생산대에 납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청부를 맡은 농가가 전부 갖거나 농가와 생산대가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농가청부생산 또는 농가청부경영을 주축으로 하는 농가청부생산책임제의 확산에 의해 농업생산은 급격히 늘어났다. 1978-84년 기간에 농업 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는데 이는 1952-78년 기간의 2.9%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빠른 성장이었다.¹³⁾

개혁 초기에 실시한 두번째 중요 정책은 국유기업에 대한 권한의 하향이양과 이익유보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경영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적에 따라 임금, 보너스가 달라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자나 노동자에게 효율성 추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정책이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생산기업의 자체적 상품 판매를 허용하였다. 즉 국가계획이나 물자공급계약의 의무를 수행한 이후 물자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생산품이나 물자관리부문이 수매하지 않는 계획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대외무역에서도 중요한 개혁이 도입되었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수출입 상품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무역회사 설립의 허가권을 성이나 시에 이양하고 무역회사에 독립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영위할 수 있

13) Lin(1992), p. 35

는 권리도 부여하였다. 또한 외화획득 기업이 일정 비율의 외환 사용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외환유보제도도 도입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경제개혁의 초기 단계에는 농업과 공업부문에서 생산과 판매에서의 자율성 확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즉 자원배분에 시장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은 가격결정방식의 개혁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전통적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가격이 모두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자율적 생산과 소비가 부분적으로 허용됨으로써 계획가격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보아 상품의 계획가격을 균형가격에 접근토록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 계획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계획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토록 하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였다. 정부가 통제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품목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었다. 1992년말 현재 농민들이 정부에 판매하는 농산품의 12.5%만이 가격통제하에 있었고 기업이 판매하는 자본재의 경우는 18.7%가 통제가격의 대상이었다.¹⁴⁾ 1994년말 현재로는 소매가격의 90%이상이 통제를 받지 않는 가격이었다.

상품가격의 개혁과 함께 환율과 이자율에 대한 개혁도 실시되었다. 과거에는 고평가된 공식환율만이 사용되었으나 1981년부터는 공식환율 외에 내부결제환율을 도입하였다. 공식환율은 비무역수지부문에 적용하고 무역수지결제에는 내부결제환율이 적용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내부결제환율이 폐지되고 외환유보제도에서 파생된 조절환율과 공식환율의 이중환율제가 시행되었는데 조절환율은 지방과 기업이 외환유보제

14) Myers(1995), p. 62.

에 의해 사용가능하게 된 외환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다. 1994년부터는 시장수급을 반영하는 조절환율을 기초로 하는 단일 관리변동환율제를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은행간 외환거래도 허용하였다. 즉 이중환율제에서 단일시장환율로 전환되었다.¹⁵⁾ 더 나아가 1996년 12월부터는 元貨를 兌換화폐로 전환시켜 경상수지계정의 거래에 외환 사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되어 온 이자율은 1980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되었다. 만기 3년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연동제도 도입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자율을 인하하기도 하고 인상하기도 하였다. 시장에서의 자금수급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목표이지만 아직은 정부가 조정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8년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은행으로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겸하였으나 1994년에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의 특수은행이 설립되었다.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이 형식적으로는 1978년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들이 각각 맡기로 했던 정책업무는 신설특수은행이 담당토록 하고 이들은 상업은행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융분야의 개혁이 부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이자율은 항상 시장이자율보다 낮고 은행여신의 규모도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중국경제는 금융정책에 따라서 경기과열과 침체의 반복과정을 밟게 되었다. 즉 기업의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는 낮은 이자율 때문에 항상 초과수요상태에 있는데 정부의 투자와 여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를 위한 여신확대는 통화공급의 증가를 의미한다. 투자확대로 야기되는 고도성장은 운송, 에너지, 건설자재 등

15)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했던 外貨兌換券(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의 신규발행이 1994년 1월부터 중지되고 1995년 1월부터는 이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의 공급애로에 직면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정책당국은 여신 규제와 투자제한정책으로 이에 대응함으로써 침체국면을 야기시킨다. 정부가 이자율을 균형수준까지 대폭 인상시키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대규모 국유기업의 생존이 저이자율정책에 의한 묵시적 보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1994년 공업부문 국유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2조 6천억원이었는데 시장이자율과 은행이자율의 격차를 10%로 보면 묵시적 보조액은 2천 6백억원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 해에 이들 기업의 세후 총이익은 830억원에 불과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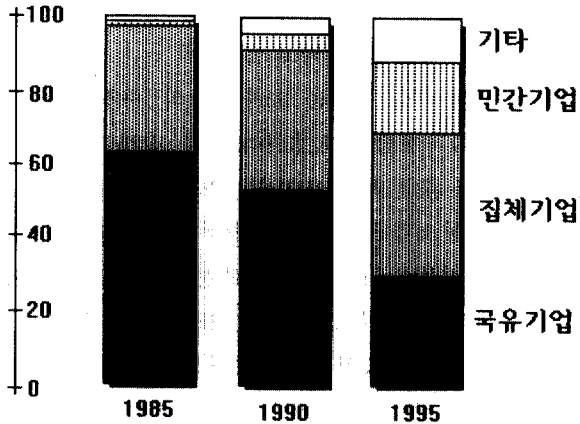
중국의 개혁정책에서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은 동유럽에서와 같은 대대적인 私有化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시장경제는 도입되 사회주의는 유지한다는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사회주의의 한 기둥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을 반영하여 중국 산업생산의 대부분은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개혁·개방 이후에 민간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기는 하였지만 현재에도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공업생산에서의 비중은 7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10만여개로 추산되는 국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은 전력, 금속, 식품가공, 화학, 기계 등 주요 산업의 60-90%를 생산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의 60%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유기업의 상당부분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1995년에 적자를 나타낸 기업은 전체 국유기업의 43%나 되었다.¹⁷⁾ 이들 국유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개선시키는가가 현재 중국의 개혁정책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중국경제는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개혁을 둘러싼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이념적 대립과 논쟁도 그치지 않고 있다. 1992년 鄧小平의 南方視察 이후 개혁·개

16) Lin(1996), pp. 2-3.

〈그림 1〉 공업생산의 기업소유형태별 구성(%)



자료 : The Economist, December 14, 1996.

주 : 기타에 속하는 것은 대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

방은 가속되었지만 중국 공산당내에서도 소위 反和平演變論에 따르는 비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和平演變의 의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와해시켜 자본주의화하려는 전략이다. 따라서 反和平演變論은 개혁을 가속하여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서방의 전략에 호응하는 결과가 되므로 개혁·개방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다.¹⁷⁾

이들 보수파들의 주장은 개혁·개방과정에서 널리 확산되는 自由化 사조는 궁극적으로 자산계급의 私所有制를 옹호하고 노동의 착취제도를 옹호하는 자유로 발전되어 社會主義, 人民民主獨裁, 中國共產黨의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 사상의 소위 4項基本原則을 직접적으로

17) The Economist, December 14, 1996.

18) 李輔根(1993), pp. 11-12.

부정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서방국가들이 사회주의의 붕괴를 목표로 多元化, 自由·民主·人權, 個人主義的 人生觀, 實用主義, 社會主義失敗論 등 서구적 가치관의 핵심적 개념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개념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¹⁹⁾

개혁·개방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보수파들의 주장에 대해 개혁론자들은 보다 대담한 개혁·개방이 反和平演變의 진정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유명한 등소평의 南巡講和는 개혁·개방 가속론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등소평은 개혁·개방에 의해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생활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6.4 사태의 관문을 돌파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노선은 옹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의 논쟁은 해로운 것이며 중요한 기준은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가 아닌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한가 아닌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주의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된 뒤에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共同的 富를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되며 共同的 富를 위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고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등소평은 사회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일치되는 것이라고 믿었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어떤 특정한 경제이론에 이끌린 것은 아니었다.²⁰⁾

11期 3中全會이래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은 ‘하나의 중심, 두개의 기본점’이다. ‘하나의 중심’은 현대화를 위한 경제건설인데 이에 대해서는

19) 李輔根(1993), pp. 59-66 참조.

20) Evans(1993, p. 236)에 따르면 이 점에 관해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문외한이다. 내가 경제학에 관해 몇 마디 말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정치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예컨대 내가 외부세계에 대한 중국의 개방이라는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상세한 내용이나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것이 없다.” Lal(1995)에서 재인용.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4項基本原則이라는 '두개의 기본점'은 대립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실행되는 정책이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는 논쟁의 여지는 크게 남게 될 것이다.

IV. 중국경제의 성과와 유교적 특성

1958-60년의 대약진운동과 1966-76년의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겪은 중국경제는 1978년의 개혁정책도입 이후 급속한 성장궤도에 진입했다. 지난 십수년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시장경제 도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러시아나 동구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개혁의 성과와 크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앞서서 급속한 성장을 실현시킨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이 다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의 국가라는 사실은 유교전통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유교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이미 중국의 개혁정책 전부터 있었지만 중국의 사례가 더 추가됨으로써 이제는 설득력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서 유교문화를 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 철학, 종교학, 사회학, 역사학 등 관련분야의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종합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기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과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의 경제행위

와 의식을 지배하는 요인으로서 유교전통의 어떤 측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가, 또는 이들 중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과 부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의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성장에서의 유교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유교정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과거에는 영향을 못미쳤는가라는 반문이다. 즉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이나 대만 또는 197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유교정신은 과거부터 이어져왔지만 빠른 경제성장은 오랜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유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따라서 경제성장의 촉진제로서 정책전환을 강조한다. 1960년대부터 대만이나 한국에서의 외부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의 전환, 1970년대 말부터의 중국에서의 시장경제도입과 개방이라는 정책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분석한 세계은행의 연구(World Bank, 1993)에서는 성공의 원인을 이들 국가에서의 산업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이자율정책 등 정부의 정책전환이나 제도개혁의 요인으로 설명하지만 유교적 전통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부정적 견해의 다른 하나는 유교의 영향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가 미친 영향이 있다면 오히려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문화와 경제사이의 관계연구의 선구자인 Weber의 명제를 따르는 관점이다. Weber는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출현을 방해한 중요한 요소로서 두 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교적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 구조였다. 유교적 윤리에서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극도로 경멸한다는 점과 서양의 청교도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성공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신을 위한

봉사의 하나의 수단이었음에 반해 유교적 이상과 덕목을 체현한 선비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유교문화는 자본주의의 출현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Weber류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이 피치자들의 입장을 중시하기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지배계급에 복종하거나 정치적 권위주의를 묵인하게 만듦으로써 서양에서와 같은 발전적인 '성취형' 인간의 탄생을 저해했고 따라서 산업화의 진전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유교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한국, 대만 등 유교권의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에 자극되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우선 서양의 잣대로 동양을 연구하는 사고의 편협함을 지적하고 서양적인 것은 합리적이며 성숙하고 보편적인데 동양적인 것은 비합리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가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Weber 등의 주장처럼 유교가 세상의 변혁이나 지배보다는 세상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고는 잘못이며 실제로 유교는 인간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내적인 변혁을 통해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 유교적 선비의 신념이었다고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교정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 우선 개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유교의 윤리규범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더 넓은 관계로 확대되는 집단지향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유교는 이익 그 자체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조화를 해치는 비도덕적 이익추구를 경멸하는 것이다. 인간적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의식은 기업에서 가부장적인 경영과 가족적인 유대를 강화시켜 노동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전환을 가속시키고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전체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표달성을 보다 쉽게 만들어 준다. 유교

의 교육을 중시하는 사고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즉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은 최근의 경제이론에서도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에서의 취학률이나 진학률은 비슷한 발전단계의 다른 문화권의 국가들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교육의 중시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²¹⁾

毛澤東시대의 중국에서 유교는 근대화를 가로막는 봉건적 잔재로서 타파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화대혁명기에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개혁정책의 도입 이후 유교전통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다. 이제 유교는 중국문화의 주류를 나타내는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9년의 천안문사태 직후 북경에서는 공자의 탄신을 기념하는 큰 집회가 있었고 江澤民 자신도 이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²²⁾

현재 중국의 관리나 학자, 기업경영자들 중에서 유교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들은 개혁정책에 모든 공을 돌린다. 그러나 그들은 유교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와 유교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받아 이 분야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이미 중국경제와 유교를 주제로 하는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경제성장에 미친 유교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아마도 한국이나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공적인 성장의 주요인은 정책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유교전통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경제적 성공

21)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유교문화의 전통과 연계시키려는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구범모(1996)를 참조.

22) The Economist, January 21, 1995.

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권위에 대한 존중 또는 가부장적 집단 의식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에 충실하게 따르려하는 국민의식이 정책전환의 비용과 저항을 축소시킴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시행을 비교적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국민의식 때문에 양질의 노동이 풍부하여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인적자본의 부족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끝으로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를 비롯한 지식층의 사명의식을 들 수 있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관리로 발탁되고 이들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제공한다는 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의 제시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V. 전망과 결론

중국은 소위 ‘중국적 특성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어떤 도그마에 지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국가를 모델로 하는 것도 아닌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혁과정에서는 경제적 자유화의 진전이 주요 정책의 내용이었다.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자유로운 판매에서부터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 개입은 축소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과 자유시장에서의 거래에 더욱 의존하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에서는 자유화운동을 억제하고 공산당의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일부 하위 지방단위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한 단체장 선거가 도입되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기본권은 계속 억압되고 있다. 중국사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유

교적 전통이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치를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쉽사리 받아들여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이러한 정부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으로 일반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민주화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자체도 선진학문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많은 유학생들을 해외로 보낸다. 이러한 지식인 계층의 확대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사회적 자유의 경험은 중국 내에서의 압제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의 개방과 현대적 통신수단을 통한 외국 문물에 대한 접촉의 확대도 자유화의 욕구를 증대시킨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적 자유화, 정치적 압제라는 중국식 모델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고수를 천명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받아들여되 자본주의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으며 개인 기업가는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중국경제를 사회주의경제로 유지해 주는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 또는 공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서 보듯이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개인이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사용권은 양도도 가능하다. 일부지만 개인 기업도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유지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것은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존재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유기업은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중요 공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 근로자 고용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국유기업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적자를 보전하는 부담은 막대하다. 중국 사회주의의 성패는 국유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경영이 정상화되고 경쟁력있는 상품의 공급과 타부문으로부터의 중간재나 원료의 수요확대를 통해 전체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윤 인

센티브를 강화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의 지시를 받는 국유기업의 경영자가 과연 이윤을 위해 자본주의경제의 기업가처럼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생산방법을 계속 추구하는 혁신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경제의 효율성제고도 어렵고 동태적 성장능력의 배양도 어렵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분리되어 있고 관리자의 이해와 소유자인 국가의 이해가 일치되지 못하며 정보의 부족 때문에 국가는 기업관리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해도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경제에서처럼 이윤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 또는 국가와 기업관리자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는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소유자인 정부의 수입증대보다는 기업관리자나 노동자의 소득과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소되기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국유기업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본토를 제외하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화교기업의 특징은 가족기업이라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아니면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위치를 맡을 수 없고 최고경영책임자의 자리는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물려진다. 이들 화교기업의 경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위 關係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가의 다른 기업가나 정치가, 관리 등과의 인간관계가 기업활동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가족기업 형태와 관계의 중시가 유교전통의 영향 때문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Fukuyama(1995, Ch. 8)는 이것을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 문화의 산물

이라고 말한다.²³⁾ 중국식 가족주의는 따라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영에 적합하고 산업조직도 따라서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대만과 한국의 기업 형태의 대비는 이러한 견해를 뒷바침한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문화가 중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사회주의체제하의 국유기업이나 집체소유기업의 형태는 중국기업문화의 전통과 일치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가족기업의 형태로는 자본집약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중화학공업부문이 시장에 맡길 경우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국가가 이들 산업을 담당하는 중국의 국유기업형태는 가족주의 문화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빠른 성장과정에서 농촌과 도시 사이, 그리고 농촌이나 도시 내에서도 개인간 소득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Kuznets의 가설이 말하듯이 개도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 소득 불균등의 심화는 상당한 내부적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발전패턴이 지속되는 한 소득분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농촌의 막대한 잉여 인력이 공업화를 통해 흡수되기에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득 분배의 불균등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 문제의 조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이제 본고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말한다면 중국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보인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들 국가의 문화적 유산, 특

23) Fukuyama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가족경영에서 전문경영으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창업 가족의 생애를 넘어서 존속되기 어렵다.

히 유교가 이들 성공의 핵심적 설명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시아 또는 중국의 문화 때문이 아니라 서양의 경제이론과 기술 그리고 제도의 적용에 의해서 급속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고 유교의 긍정적 영향은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강화하고 더 지속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나 대만 또는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제정책의 도입 또는 개혁은 크게 보면 생산물과 요소시장의 뚜렷한 왜곡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왜곡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동양의 문화가 아니고 서양의 경제학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개혁은 대약진운동의 대대적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인데 농가책임제라는 명목하에 농토에 대한 실질적인 사적재산권을 허용함에 의해서만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즉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중국의 유교윤리도 아닌 서양식 경제논리의 도입이 개혁의 중심이 되고 경제적 변영의 기초가 된 것이다.

올바른 경제논리에 따른 정책이 채택되었을 때 이들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 될 수 있는가는 개별 국가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별 국가의 종교적 또는 문화적 유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개혁정책의 수확이 문화적 토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유교적 유산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 姜鳳求(1996), “最近 中國의 投資環境變化와 우리 企業의 對應方案,” 한국산업은행, 『産業經濟』, 제72호.
- 具範謨(1996) 監譯, 『공자의 경제학 : 유교와 경제성장』 (Tai Hung-Chao 外), 도서출판 한세
- 李輔根(1993), 『中國의 改革·開放에 관한 政治的 視覺』,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 崔秀雄(1994), 『中國의 地域政策과 地域經濟發展戰略』,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 中國國家統計局(1996), 『中國統計年鑑 1996』, 中國統計出版社, 北京.
- Evans, R. (1993), Deng Xiaoping, London, Hamish Hamilton.
- Fukuyama, Francis(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Simon and Schuster.
- Lal, Deepak(1995), “India and China : Contrasts in Economic Liberalization?,” World Development, Vol. 23, No. 9.
- Lin, Justin Yifu(1992), “Rural Reforms and Agricultural Growth in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 Lin, Justin Yifu(1996), “State Intervention, Ownership and State Enterprise Reform in China,” The 23r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8-11 December, Taipei.
- Lin, Justin Yifu, Cai, Fang and Li, Zhou(1996), The China Miracle :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Reform,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한동훈 번역, 『중국의 기적 :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백산서당, 1996.
- Myers, Ramon H. (1995), “Chinese Debate on Economic Reform : Can China Create a Socialist Market Economy?,”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Vol. 9, No. 2.
- World Bank(1993), The East Asian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1996),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Oxford University Press.